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The Contents and Character of the Huayan Literature in Shilla and Koryo Dynasties

저자 (Authors)	최연식 Yeon Shik Choe
출처 (Source)	불교학보 60 , 2011.12, 235-262(28 pages) BUL GYO HAK BO 60 , 2011.12, 235-262(2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601
APA Style	최연식 (2011).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불교학보, 60, 235-2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1 11:4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최연식*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고려시기의 화엄학문헌과 화엄사상 |
| II. 통일신라시기의 화엄학 문헌과 화엄사상 | IV. 맺음말 |
-

〈한글요약〉

고대와 중세 한국 불교계에서 『화엄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교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이 저술되었다. 하지만 일부 단간이라도 전해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모두 합쳐도 20종이 채 안 되며, 그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문헌은 10여 종 정도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 내용이 확인 가능한 신라와 고려시대의 화엄학 문헌인 義相의 『法界圖(記)』와 『華嚴經問答』, 元曉의 『華嚴經疏』, 明晶의 『海印三昧論』, 表員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均如의 『教分記圓通鈔』, 『旨歸章圓通鈔』, 『三寶章圓通記』, 『十句章圓通記』, 『法界圖圓通記』, 『法界圖記叢髓錄』, 知訥의 『華嚴論節要』, 體元의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그리고 신라 화엄학의 영향 하에 찬술된 『華嚴一乘成佛妙義』와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고대 및 중세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와 고려에서는 『화엄경』 자체에 대한 주석서는 매우 드물어서 원효의 『화엄경소』와 태현의 『화엄경고적기』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화엄경』과 화엄학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헌도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 및 고려 화엄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의상계에서는 주로 義相과 智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儼, 法藏 등의 저술에 대한 해설서 즉 私記 성격의 문헌을 찬술하였다. 특히 의상의 『법계도기』에 대한 해설서가 가장 많이 찬술되어 신라와 고려의 화엄학이 『법계도기』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라 및 고려시대의 화엄학은 주로 60권 『화엄경』 및 그 주석서들에 기초하였고, 80권이나 40권 『화엄경』과 관련된 저술은 많지 않다. 80권 『화엄경』과 관련된 것은 13세기 지눌의 『화엄론절요』, 40권 『화엄경』 관련 문헌은 14세기 체원의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가 각기 유일하다. 한편 의상의 『법계도기』를 비롯하여 『해인삼매론』, 『화엄일승수행자비밀의기』 등 화엄의 진리를 槃詩를 통해 표현한 문헌들이 많다는 것도 한국 화엄학 문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문헌은 화엄학의 이론들을 설명하기보다 깨달음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법계도기』에 기초한 한국 화엄학의 발전 양상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義相, 元曉, 明晶, 表員, 見登, 均如, 知訥, 體元, 『法界圖(記)』, 『華嚴經問答』, 『華嚴經疏』, 『海印三昧論』, 『華嚴經文義要決問答』, 『教分記圓通鈔』, 『旨歸章圓通鈔』, 『三寶章圓通記』, 『十句章圓通記』, 『法界圖圓通記』, 『法界圖記叢髓錄』, 『華嚴論節要』,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華嚴一乘成佛妙義』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I. 머리말

『화엄경』에 대한 연구는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엄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불교 교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이 저술되었다.(『화엄경』의 書寫, 刊行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빈도가 높다) 종종 한국불교를 ‘화엄 불교’라고 특징짓는 것도 그러한 불교계의 동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근대, 특히 고대와 중세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당시에 저술된 문헌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하고, 이름이 전해지는 문헌들 중에도 실제로 전해지는 문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일부 단간이라도 전해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모두 합쳐도 20종이 채 안 되며, 그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문헌은 10종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재 전해지는 문헌들은 고대 및 중세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 중 일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문헌들만으로 당시의 『화엄경』에 대한 연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다. 현전하지 않는 문헌들 중에도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시되었지만 후대에 잊혀진 중요한 문헌들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현재 전해지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및 중세의 『화엄경』에 대한 이해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불교의 경우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화엄경』을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는 화엄학 관련 문헌들을 모두 망라하여 화엄학 문헌이라고 하였다.

II. 통일신라시기의 화엄학 문헌과 화엄사상

1. 義相의 『法界圖(記)』와 『華嚴經問答』

한국의 화엄학 문헌 중 가장 시기가 앞서는 것으로는 통일신라 초기에 중국에서 화엄학을 수학하고 들어온 義相(625~702)의 저술을 들 수 있다. 의상 이전에도 『화엄경』에 관심을 가진 승려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통일신라 이전 삼국시대의 『화엄경』에 관한 문헌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의상이 찬술한 화엄학 문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계도(기)』이다. 『華嚴一乘

法界圖(記)』라고도 하는 이 문헌은 『화엄경』에 설해진 진리를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7言 30句의 槃詩[圖印]와 그에 대한 설명[記]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엄경』의 가르침인 圓教一乘을 현창하면서, 그 一乘의 가르침이 모든 존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法界緣起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法界圖와 詩의 내용이 『화엄경』과 『十地經論』에 의거하여 圓教의 핵심사상을 드러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 六相(總相·別相·同相·異相·成相·壞相)과 十玄門, 數十錢法 등 스승인 智儼의 교학체계가 강조되어 있지만 기본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理相即’, ‘一乘別教-三乘別教’ 등과 같은 중국 화엄학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자적인 개념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자세한 설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화엄교학의 핵심 원리를 간결하게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 문헌으로 화엄교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저술한 문헌은 아니다. 책의 끝부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經(『화엄경』), 論(『십지경론』)과 함께 지엄의 저술인 疏(『搜玄記』), 抄(『入法界品抄』), 孔目(『공목장』), 問答(『五十要問答』) 등에 자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²⁾ 스스로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나 『화엄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헌을 저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스승인 지엄의 저술들에 의거하여 『화엄경』과 화엄학의 근본 내용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崔致遠이 지은 의상 전기에서는 『법계도(기)』의 찬술 상황에 대하여 스승 지엄으로부터 그동안 공부하여 깨달은 내용을 정리하라는 권유를 받고서 처음에 10권의 『大乘章』을 지었다가 이를 4권의 『立義崇玄』³⁾으로 축약한 후 다시 이를 7언 30구 詩로 요약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⁴⁾ 독자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한 저술이라기보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계도(기)』 말미에는 이 책을 668년 7월 15일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는데,⁵⁾ 이때는 스승 지엄의 입적 3개월 전이었다.⁶⁾ 『법계도(기)』는 의상의 지엄 문하에서의 수학 내용을 총결산한 것이자, 귀국 후 의상의 가르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상의 화엄학 저술로는 『법계도(기)』 이외에 『十門看法觀』(1권)과 『入法界品抄記』

1)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8中). “依華嚴經及十地論 表圓教宗要”

2)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8中). “餘廣義者 如經論疏抄孔目問答等分別也”

3) ‘立義崇玄’에 대해 崔致遠은 智儼의 『搜玄記』의 뜻을 높이려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一乘法界圖圓通記』(『韓佛全』4, p.1上~中).

5)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8中). “總章元年七月十五日記”

6) 智儼은 같은 해 10월 29일에 入寂하였다.

(1권)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⁷⁾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전자는 화엄의 十玄門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고, 후자는 스승 지엄의 『入法界品抄』에 대한 해설서로 생각된다. 의상은 『법계도(기)』에서 경전의 가르침이 十玄門과 일치하는 것은 一乘圓敎나 頓敎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三乘漸敎라고 하여 십현문을 一乘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十門看法觀』은 십현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생각된다. 지엄의 『入法界品抄』⁸⁾는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의상은 『수현기』, 『공목장』, 『오십요문답』 등과 함께 지엄의 주요 저술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문헌에는 이 책의 인용이 보이지 않지만 고려시대 의상계의 화엄학 문헌에는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고,⁹⁾ 『新編諸宗教藏總錄』에도 智儼의 저술로 명기되어 있다. 신라와 고려의 의상계 화엄학과 내에서는 중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十門看法觀』(1권)과 『入法界品抄記』 찬술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귀국 이후에 찬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의상은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나 화엄학의 기본 체계를 정리하는 개론 형태의 저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同門인 法藏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법장은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인 『探玄記』(20권)를 비롯하여 『오교장』, 『화엄경강목』, 『화엄경지귀』 등의 화엄학 개설서를 다수 남겼다. 법장이 『화엄경』과 화엄학 이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과 달리 의상은 『화엄경』과 화엄학의 핵심 사상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스승 지엄의 저술에 의거하였다고 생각된다.¹⁰⁾

의상이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의상의 『화엄경』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제자들이 정리한 문헌들도 통일신라 초기의 화엄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들이다.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이러한 문헌으로 『要義問答』(2권)과 『一乘問答』(2권) 2종을 제시하고 있다.¹¹⁾ 전자는 제자 智通이 정리한 것으로 『錐穴問答』, 『錐洞記』 혹은 『智通問答』, 『智通記』로도 불리며 후자는 제자 道身이 정리한 것으로 『道身章』으로도 일컬어진다. 현재는 두 책 모두 전해지지 않으며, 고려초 均如의 저술과 고려후기에 편

7) 『新編諸宗教藏總錄』권1(『韓佛全』4, p.681上,下).

8) 『入法界品抄』의 성격에 대해서는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77), pp.398~399참조.

9) 均如의 『法界圖圓通記』, 『敎分記圓通鈔』, 『旨歸章圓通鈔』와 『法界圖記叢龍錄』 등에 인용되고 있다.

10) 智儼이 義相과 法藏을 각기 義持와 文持로 칭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두 사람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1) 『新編諸宗教藏總錄』권1(『韓佛全』4, p.682上).

찬된 『법계도기총수록』 등에 일부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내용들로 볼 때 전자는 『화엄경』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화엄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상이 귀국한 후 소백산 浮石寺에서 문도들에게 『화엄경』의 가르침을 강의하던 676년 이후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의상이 제자 眞定の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문도들을 小伯山 錐洞에 모으고 약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였고, 智通이 그중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여 『錐洞記』 2권을 편찬했다는 내용이 『三國遺事』에 보이고 있다.¹²⁾ 근래에는 智通이 정리한 책의 逸文 내용이 일본에서 法藏의 저술로 전해져 온 『華嚴經問答』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로부터 지통이 정리한 의상의 강의록이 일본에서 법장의 저술로 잘못 알려져 왔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³⁾ 실제로 두 책의 내용은 실제로 상당 부분이 일치할 뿐 아니라 『화엄경문답』이라는 제목은 의상의 『화엄경』 강의 내용을 지통이 정리하였다는 사실과 상응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같은 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¹⁴⁾ 지통이 정리한 강의록의 逸文 중 일부가 『화엄경문답』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엄경문답』은 지통이 정리한 강의록과는 별개로 또 다른 제자 가스승의 강의를 정리한 책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진 강의록이 별도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두 책의 내용상의 차이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편제종교장총록』에서는 의상 제자들의 문장 실력이 좋지 못하여 문장이 비루하고 方言을 섞어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엄경문답』 중에는 중국어 어순과는 다른 한국식 어순으로 쓰인 이른바 變體漢文 표현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신편제종교장총록』에서 이야기한 方言에 대해 이두나 향찰식 표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화엄경문답』으로 보건데, 방언은 한국식 어순으로 쓴 변체한문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국내에서 유통된 지통이 정리한 강의록은 고려후기에 李藏用(1201~

12) 『三國遺事』 권5 <眞定師孝善雙美>.

13) 石井公成,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教學研究』33-2,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1985), pp.178~181; 金相鉉,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84 (서울: 一志社, 1996), pp.28~45.

14) 1094년에 편찬된 일본 승려 永超의 『東域傳燈目錄』에서는 『一乘法界圖』도 法藏의 저술로 명기하면서 細注로 南都本에 義湘의 찬술로 적혀있다고 밝히고 있다.(『大正藏』55, p.1146中, p.1147上) 후대에 義相의 저술이 일본에 전해졌을 때 일본 불교계에서는 義相이 어떠한 인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의 내용 등을 보고 法藏의 저술로 오해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272)에 의해 정통 한문으로 潤色되었다고 하는데,¹⁵⁾ 『화엄경문답』은 윤색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元曉의 『화엄경』 관련 저술

의상과 비슷한 시기에 원효(617~686)도 『화엄경』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여러 목록과 인용문 등을 통해 『華嚴經疏』를 비롯하여 『華嚴經宗要』, 『華嚴經綱目』, 『大乘觀行』, 『一道章』, 『普法記』 등의 『화엄경』 관련 저술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¹⁶⁾ 하지만 이 중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華嚴經疏』의 경우 序文¹⁷⁾과 卷3의 일부¹⁸⁾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밖에는 다른 책에 인용된 일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모든 종류의 경전에 관심이 있던 원효이므로 『화엄경』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엄경』에 관한 저술들은 초기부터 후기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일도장』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저술로 생각되는 『二障義』와 『大乘起信論疏』에 인용되고 있어 초기의 저술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普法, 數錢法 등 지엄 문하의 화엄학 용어와 개념들이 보이는 『화엄경종요』와 『보법기』 등은 의상이 귀국하여 지엄의 화엄학을 전한 670년대 이후의 후기 저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十廻向品에서 절필했다고 하는¹⁹⁾ 『화엄경소』는 최만년의 저술일 가능성이 높다.²⁰⁾

『일도장』은 제목으로 볼 때 원효가 중시하였던 『화엄경』 중의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라는 구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이 구절에서 찾고, 여기에서 대승의 기본적 입장을 추구한 저술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화엄경종요』와 『보법기』는 의상을 통해 알게 된 화엄학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 원효 자신의

15) 『高麗史』권102 列傳, 李藏用.

16) 『新編諸宗教藏總錄』 중의 華嚴經部에 『華嚴經疏』(『華嚴經宗要』 포함), 『大乘觀行』, 『一道章』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일본의 『화엄종장소병인명록』과 『동역전등목록』에 『華嚴經疏』와 『華嚴經綱目』이 수록되어 있다. 『普法記』는 목록들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려초 均如의 저술에 『華嚴經宗要』와 함께 인용되고 있다.

17) 『東文選』권83에 수록되어 있다.

18) 일본 근세의 寫本을 저본으로 하여 『大正藏』에 수록되었다.

19) 『三國遺事』권4 <元曉不羈>

20) 元曉 저술의 찬술 순서에 대해서는 石井公成, 『新羅佛敎に於ける『大乘起信論』の意義-元曉の解釋を中心として』, (平川 彰 編) 『如來藏と大乘起信論』(東京: 春秋社, 1990), pp.551~553 및 남동신, 『원효의 대승교화와 사상체계』(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pp.111~115 참조.

입장에서 정리한 문헌들로 생각된다. 『화엄경문의요결문답』에 인용된 원효의 普法에 대한 설명은 내용상 이 두 문헌으로부터의 인용으로 생각되는데, 같은 普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개념에 대한 이해는 화엄학과 차이가 있다. 『화엄경소』는 현재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볼 때 『화엄경』 내용에 대한 逐句의 주석서이며, 이는 ‘疏’라는 제목과 상응하는 것이다. 신라는 물론 전근대 우리나라에서 찬술된 유일한 『화엄경』 자체에 대한 주석서로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성되지 못하고 十廻向品 부분에서 중단되었다. 저술의 순서와 내용으로 볼 때 원효는 처음에는 『화엄경』에서 대승사상의 본질을 추구하다가 의상의 귀국 이후 화엄학의 이론을 접하고 이에 공감하여 그 개념들에 대한 독자적인 설명을 시도하였고, 만년에는 『화엄경』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시도하였지만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입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엄경강목』과 『대승관행』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자료가 없어 내용이나 성격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제목으로 볼 때 『대승관행』은 『일도장』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성격의 문헌이 아닐까 생각된다. 『화엄경강목』은 일본의 목록에만 보이고 있는데, 제목으로 볼 때 『화엄경중요』와 동일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목록들에는 『화엄경중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효의 『화엄경』 관련 저술 중 가장 널리 읽히고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화엄경소』이다. 이 책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널리 읽혔다. 특히 이 책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교판론은 法藏을 비롯한 중국 화엄사상가들에게도 주목되었다. 일본의 경우 이 책은 『화엄경』에 대한 기본적 주석서의 하나로서 고대와 중세에 걸쳐 빈번하게 필사되었다.

3. 8세기 이후의 화엄학 문헌

의상과 원효에 의해 『화엄경』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7세기말까지 두 사람 이외에 『화엄경』에 대해 저술한 승려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7세기후반에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긴 義寂과 憬興의 저술 목록에도 『화엄경』 관련 문헌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8세기 이후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화엄경』 관련 문헌들이 나타나고 있다. 8세기 중엽의 대표적 불교학자인 太賢의 『華嚴經古迹記』(10권)와 750년대 華嚴寺에서 활약한 緣起의 『華嚴經開宗決疑』(30권), 『華嚴經要決』(12권)를 비롯하여 梵如의 『華嚴經要決』, 可歸의 『華嚴經義綱』, 珍嵩의 『一乘法界圖記』, 『孔目章記』, 『探玄記私記』, 明晶의 『海印三昧論』, 表員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 그

밖에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自體佛觀論』, 『南岳觀公記』, 『心輪鈔』 등 다양한 『화엄경』 주석서 및 화엄학 문헌들이 찬술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재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후대의 문헌에 일부 내용이 인용되거나 책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책의 내용이 온전하게 전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효의 『해인삼매론』과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에 불과하다. 『화엄경고적기』와 『화엄경개종결의』 등은 제목과 분량 등으로 볼 때 『화엄경』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주석서 내지 체계적 이론서로 보이며, 저자인 태현과 연기는 8세기 중엽의 대표적 고승이었으므로 이 문헌들은 당대 화엄학의 연구 동향과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이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해인삼매론』과 『화엄경문의요결문답』 등은小品이거나 입문서적 성격의 문헌으로서 당대 신라 화엄학 연구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海印三昧論』의 저자 明晶에 대해서는 이 문헌 이외에 다른 자료가 거의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없다. 다만 700년에 중국에서 밀교 경전인 『不空羂索陀羅尼經』의 漢譯에 관계하였던 신라출신 승려 明曉가 보이고 있는데, 晶와 曉가 발음과 의미가 같아 서로 통하는 글자라는 점에서 같은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²¹⁾ 실제로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면 명효는 7세기말에 중국에 유학하였다가 8세기초에 신라에 귀국하여 활동한 인물로 볼 수 있다. 『해인삼매론』은 740년에 일본에서 필사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찬술된 것을 알 수 있는데, 明曉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700~740년 사이에 찬술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화엄경』의 기본적 삼매인 海印三昧의 본질을 노래한 7言 28句로 구성된 繫詩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시와 반시의 형식에 대한 설명방식 등에서 의상의 『법계도기』를 의식한 저술로 볼 수 있는데, 반시의 해독 순서는 의상의 법계도와 반대 방향이다. 하지만 반시에 대한 이해와 서술 방식은 『법계도기』와 차이가 있다. 의상이 깨달음의 내용으로 반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명효는 자신의 반시를 모든 경전의 진리를 담고 있는 다라니라고 하면서 항상 암송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시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시와 본문의 설명에서는 『화엄경』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대승기신론』과 이전의 대승교학의 이론도 중시되고 있다. 의상과 원효의 특징적

21) 김상현, 「新羅 明晶의 『海印三昧論』考」,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歷史學的 諸問題』(서울: 범우사, 1992), pp.61~80.

인 용어들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의상의 화엄교학과 원효의 사상에 영향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화엄경』의 핵심적 가르침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생각된다.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의 저자 表員의 구체적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 책의 저자 표기에 그가 皇龍寺 승려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²²⁾ 일본측 자료에 751년 이후 이 책의 필사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8세기 전반기에 찬술된 것으로 생각된다.²³⁾

이 책은 『화엄경』과 화엄교학의 주요 개념들[7處9會, 說經時, 說經佛, 六相, 十錢喻, 緣起, 探玄, 普法, 發菩提心, 實際, 如如, 法界, 一乘, 分教, 十住, 十行, 十廻向, 十地]에 대하여 설명하는 18개의 장[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해당 개념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은 釋名(해당 개념에 대한 기본적 설명), 出體(해당 개념의 본질에 대한 설명), 問答(해당 개념과 관계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문답형식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역대 학자들의 저술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자 자신의 독자적인 설명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²⁴⁾ 화엄교학을 집대성한 法藏과 그의 제자 慧苑, 남북조시대 말기의 대표적 교학자인 慧遠의 저술이 주로 인용되고 있고 元曉도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義相의 인용빈도는 낮고, 내용적으로도 그다지 중시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화엄경』 및 화엄교학에 대한 개론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을 논하기보다 초학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입문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상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한 사상 경향을 강조하기보다 기존의 여러 견해들을 종합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학자의 견해가 중시되고 있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상의 견해가 중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상의 저술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저술 내용도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 수행을 통한 체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이 출현한 것은 당시에 불교계는 물론 일반 지식층 사이에 『화엄경』 및 화엄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2) ‘皇龍寺釋表員集’으로 표시되어 있다.

23)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의 기본 성격 및 書誌의 정보에 대해서는 김지건 감수·김천학 역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서울: 민족사, 1988)의 <해제> 참조.

24) 책의 저자 표시에서 ‘述’이나 ‘撰’이 아니라 ‘集’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25) 8세기 중엽 신라 불교계에서의 『화엄경』 및 화엄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대해서는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12(서울: 불교학연구회, 2005),

4. 신라 화엄학의 영향하에 찬술된 문헌

신라에서 찬술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화엄학의 영향하에 찬술된 문헌으로 일본에서 찬술된 見登의 『華嚴一乘成佛妙義』와 後高句麗에서 찬술된 것으로 생각되는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가 있다.

見登은 종래 신라의 화엄학 승려로 알려져왔지만 그의 저술 내용을 통해 볼 때 신라에서 화엄학을 수학한 후 일본에서 활약한 승려로 확인된다.²⁶⁾ 그의 저술로 『화엄일승성불묘의』와 『大乘起信論同玄章』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자만 전해지고 있다. 『大乘起信論同異略集』도 그의 저술로 알려져 왔지만 이 책은 8세기 중엽의 일본 승려 智儼의 찬술로 후대 저자가 잊혀지면서 비슷한 제목의 저술을 남긴 견등이 찬술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²⁷⁾

『화엄일승성불묘의』는 화엄교학에서의 成佛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헌으로, 성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다루는 <出成佛種>, 성불의 주체에 대해 설명하는 <辨定得人>, 여러 학파의 성불론의 차이를 논하는 <顯教差別>, 장기간의 수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불에 이른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疾得成佛>, 화엄교학에서의 성불론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問答分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成佛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화엄교학의 이론이 가장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엄학파의 견해를 설명하는 데에는 주로 화엄교학의 이론을 체계화한 法藏과 智儼의 저술들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화엄경문답』과 의상계 화엄학자인 珍嵩의 『공목장기』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신라 의상계만의 특징적 이론인 自體佛에 관한 논의가 이야기되는 등 의상계 화엄학의 영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상계에서 주장한 三乘의 수행자 중에는 부처가 될 때까지도 一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三乘極果廻心說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신라에서 의상계뿐 아니라 非의상계의 화엄학을 종합적으로 수학한 것으로 생각된다.

8세기 중엽 일본에 화엄학을 전래한 新羅留學生 審祥은 元曉와 法藏의 이론을 중

pp.241~274 참조.

26) 최연식,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한국사연구』115(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pp.1~37.

27) 崔鉉植,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의 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敎論集』7(東京: 駒澤短期大學, 2001), pp.77~93.

시하였기 때문에 일본 초기의 화엄학은 범장과 원효의 『화엄경』 해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의상계 화엄사상의 영향은 9세기 후반 이후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9세기 당시 신라 화엄학의 동향을 전한 견등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²⁸⁾ 그는 신라에서 의상계의 저술을 비롯한 신라 불교계의 다양한 『화엄경』 관련 연구들을 접하고 일본에 들어가 이를 소개하였던 것이다.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는 중국 房山石經 중에 새겨져 있는 문헌으로 최근에 소개되었다.²⁹⁾ 健拏標訶는 화엄경의 범어이름인 Gaṇḍa-vyūha(雜華嚴飾)를 음譯한 것으로서, 중국과 한국의 다른 자료에 『雜華嚴一乘修行者秘密義記』, 『雜華嚴論』, 『秘密義記』, 『標訶記』, 『標訶論』, 『華嚴記』 등의 이름으로 인용 혹은 언급되고 있는 문헌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³⁰⁾ 다른 자료에 인용, 언급된 내용과 비교할 때 방산석경에 새겨져 있는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抄錄本으로 생각된다.³¹⁾

이 책은 서론, 본론, 法界印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 앞과 범계인 뒤에는 각기 歸命偈와 廻向偈가 있다.³²⁾ 서론에서는 이 책의 저자 및 저술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저자인 法藏은 平壤 新城人으로 출가 후 서방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大香山에서 바라문을 만나 心源의 가르침을 받은 후 그것을 후대에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지극히 뛰어난 가르침이므로 근기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할 수 없는 비밀스런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法界의 總相과 別相, 五敎의 이론적 차이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화엄교학의 5교판에 입각하여 화엄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들에 비해 뛰어난 동시에 다른 모든 가르침을 모두 다 포섭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이 無住임을

28) 최연식, 『日本 古代華嚴과 新羅佛敎』, 『한국사상사학』2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3), pp.1~42.

29) 姚長壽, 『房山石經における華嚴典籍について』, (氣賀澤保規 編)『中國佛敎石經の研究-房山雲居寺石經を中心に』(京都:京都大學學術出版會, 1996), pp.411-438; 佐藤 厚,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의 基礎的研究』, 『東洋學研究』39 (東京: 東洋大學東洋學研究所, 2002), pp.147~178.

30) 고려시대 義天의 『大覺國師文集』과 중국 승려 延壽의 『宗鏡錄』, 希迪의 『五敎章集成記』 등에 보이고 있다.

31) 『大覺國師文集』에서는 이 책을 『華嚴記』3卷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房山石經本은 12丈(丈 당 16자 27~8행)으로 1卷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다.

32)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의 구성과 사상 내용에 대해서는 최연식,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와 羅末麗初 華嚴學의 一動向』, 『한국사연구』126(서울: 한국사연구회, 2004), pp.37~81 참조.

강조하고 있다. 法界印은 7言96句로 구성된 槃詩인데 내용상 ① 부처의 경계(證分, 1~4구), ② 보현의 설법연기(緣起分, 5~12구), ③ 法身の 觀想(修行次第, 13~34구), ④ 法身の 작용(修行功德, 35~82구), ⑤ 본래성불의 자각(返本, 83~96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시라는 형식뿐 아니라 구성방식 등에서 의상의 法界圖印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3句(證智所知非餘境, 初發心是便正覺, 舊來不動名爲佛)가 법계도인과 일치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라고 하는 法藏은 다른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후대 중국에서는 화엄교학을 집대성한 法藏과 동일시하였지만³³⁾ 책의 내용으로 볼 때 화엄종 조사 법장의 저술로는 보기 힘들다. 서론의 내용도 대부분 신비한 내용들로서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고려시대의 義天은 이 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승려가 화엄종 조사 法藏의 이름을 가탁하여 지은 책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서론에 보이는 平壤 新城과 大香山이라는 지명은 이 책의 저술시기 및 지역을 살펴보는 실마리가 된다. 平壤 新城이라는 지명은 중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고려시대의 西京 즉 평양에 속해 있던 新城部曲에서 확인되고, 大香山은 평양 서북쪽의 妙香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책은 평양 신성이 존재하고 묘향산에 대하여 신비로운 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찬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0세기초의 後高句麗시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 책은 화엄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의상계 화엄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상의 法界圖印을 모범으로 하여 법계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상계 화엄학에서 강조하는 無住, 圓敎와 三乘極果廻心說 등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승기신론』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心源, 一法界大總相, 眞如門-生滅門 등의 『대승기신론』 용어들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엄학 개념들에 대해서도 본래의 화엄학과는 달리 『대승기신론』에 의거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總相과 別相을 각기 큰 바다와 그 바다에서 흘러나온 支流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현상의 전체적 모습[總相]과 부분적 모습[別相]이라는 화엄교학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는 또한 大日如來, 護摩 등의 密敎

33) 이 문헌이 房山石經에 새겨진 것도 저자를 화엄종 조사 法藏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遼-金代에 大藏經을 石經에 새긴 후 화엄종 조사들의 문헌 하나씩을 추가로 새긴 가운데에 들어 있다.

34) 義天은 前高麗 때의 저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前高麗는 보통 高句麗를 가리키지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볼 때 고구려시대의 저술로 보기는 힘들다. 의천이 말한 前高麗는 高麗 왕조 이전의 高麗, 즉 後高句麗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용어가 보이고 있고, 圖象과 비밀스런 전승을 강조하는 등 밀교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밀교의 이론이나 수행법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상계 화엄학과 『대승기신론』을 중시했던 원효의 사상에 밀교적 요소가 추가된 사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매개로 하여 이 세 가지 사상을 종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고려시기의 화엄학문헌과 화엄사상

화엄학은 고려시대 불교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였다. 화엄종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유력한 종파로서 영향력을 떨쳤고, 선종 승려들 중에서도 『화엄경』과 화엄학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 비해 현재 전해지는 화엄학 문헌은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고려초기 화엄학자 均如의 저술들과 고려중기에 편찬된 의상의 『법계도기』 주석서 모음집인 『法界圖記叢髓錄』, 무인집권기에 修禪結社를 개창한 禪僧 知訥의 『華嚴論節要』, 元간섭기의 화엄학승 體元이 편찬한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등이 전해질 뿐이다.

1. 均如의 화엄학 저술

均如(923~973)는 고려초기 화엄종의 사상체계를 수립한 화엄학자로 의상계 화엄사상의 기반 위에 智嚴과 法藏의 사상을 포용한 이론체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均如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搜玄方軌記』 10권, 『孔目章記』 8권, 『五十要問答記』 4권, 『探玄記釋』 28권, 『教分記釋』 7권, 『旨歸章記』 2권, 『三寶章記』 2권, 『法界圖記』 2권, 『十句章記』 1권, 『入法界品抄記』 1권 등 모두 10종 65권의 저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智嚴과 法藏, 義相의 대표적 저술에 대한 해설서이고, 『십구장기』는 智嚴이 『화엄경』의 핵심요지로 제시한 十句에 대해 신라에서 의상의 문도가 설명을 붙인 『십구장』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10종의 책들은 의상계 화엄학자들이 주로 연구한 책으로 均如는 당시의 대표적 화엄학 문헌 대부분에 대해 주석서를 남긴 것이다.

均如의 저술 10종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教分記圓通鈔』 10권, 『旨歸章圓通鈔』 2권, 『三寶章圓通記』 2권, 『十句章圓通記』 2권, 『法界圖圓通記』 2권(上中下 3권 중 中

卷 逸失) 등 5종 10권이다.³⁵⁾ 균여의 전기와 권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전해지는 책들이 후대에 다시 편집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균여의 저술은 본래 대부분 본인이 직접 찬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강의를 제자들이 기록하여 정리한 강의록이었다.³⁶⁾ 따라서 方言과 古訓이 섞여 후대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에 후대의 사람들이 方言과 古訓을 없애고 새롭게 편집하였다고 한다. 方言과 古訓은 의상의 강의록에 보이는 것과 같은 구어체의 변체한문이나 吏讀 등으로 생각된다.

균여의 현존하는 저술들은 모두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제일 앞에 주석하는 문헌의 작자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에 해당 문헌의 제목의 의미를 설명한 후[釋題目, 釋題名],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逐句的으로 해설하고 있다[入文解釋]. 작자에 대한 설명은 작자에 논란이 있는 경우 그 작자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定造者(『법계도원통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자의 행적과 함께 해당 문헌을 짓게 된 배경[章主因緣并造文因緣(法藏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비교적 분량이 많은 『교분기원통초』에서는 제목에 대한 설명 앞 부분에 『교분기』 전체의 주제를 밝히는 <宗趣>를 추가하고 있기도 하다. 『십구장원통기』는 따로 작자나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두지 않고 곧바로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십구장』본문의 첫 부분이 바로 『십구장』이 만들어진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첫 부분에 대한 설명 중에 자연스럽게 작자와 제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균여의 저술들은 당시 화엄종에서 중시하던 문헌들에 대한 逐句的 주석서로서 私記的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기는 각 학파가 의거하고 있는 기본 문헌들에 대한 해설서로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권위있는 견해들을 정리하여 학파 내부의 이견을 해소하고 정통적인 해석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갖는 저술인데, 균여의 저술들은 이러한 사기의 성격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私記의 전통은 『법계도기총수록』에 수록된 의상의 『법계도기』

35) 이들은 모두 고려 再雕大藏經 판각 시에 補遺板으로 판각되었다. 이 중 『법계도원통기』의 목판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의 목판은 현재도 海印寺藏經閣에 소장되어 있다.

36) 현존하는 저술들에는 강의 시기가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 『법계도원통기』는 958년 7월, 『교분기원통초』는 959년 8월(五敎章), 960년 여름(所詮章), 962년 여름(義理章)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의되었다. 『십구장원통기』와 『삼보장원통기』는 내용상 『법계도원통기』와 所詮章 사이, 『지귀장원통초』는 『삼보장원통기』 이후로 추정된다.

37) 일본의 경우 10세기 이후 南都佛敎의 각 종파들에서 다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헤인안 시대 불교의 특징을 私記의 산출에서 찾기도 한다.[結城令聞, 『日本の唯識研究史上における私

에 대한 여러 주석서들이나 『법계도기』를 비롯하여 지엄의 『공목장』, 법장의 『탐현기』 등에 대해 주석서를 지었던 珍嵩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미 신라 화엄학에서부터 있었다.³⁸⁾ 『법계도기』에 수록된 여러 주석서들은 물론이고 일부 逸文이 전하고 있는 진승의 『공목장기』도 해당 문헌내용을 추구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존의 이견들을 해소하고 정통적인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³⁹⁾ 균여의 저술들은 그러한 신라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여의 저술들에는 이전의 많은 화엄학 문헌 및 화엄학자의 견해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주로 인용되는 것은 義相과 智儼과 法藏의 저술들이고, 그밖에는 澄觀과 신라의 의상계 화엄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다.⁴⁰⁾ 저술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균여가 의상의 가르침에 기초한 신라 화엄학의 사상적 입장을 토대로 하면서 지엄과 법장의 이론들을 받아들여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澄觀과 의상계 화엄학자들의 견해는 각기 지엄과 법장 및 의상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원효도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화엄학 이론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 주로 唯識學이나 『대승기신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참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균여의 저술들은 고려초에 화엄종의 사상적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텍스트로서 찬술되었고,⁴¹⁾ 이후 오랫동안 고려 화엄종의 기본적 입장으로 여겨져 왔다. 11세기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義天에 의해 ‘말이 되지 않고 (조사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였다’고 비판받았지만 고려후기에도 가장 권위 있는 문헌으로 인정받아 새롭게 편찬되고 목판으로 간행되기까지 하였다. 의천은 澄觀의 『華嚴經疏』와 『演義鈔』에 기초하여 화엄사상을 새롭게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고려의 화엄학자들 사이에서 균여가 정리한 화엄학 이해는 징관의 해석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

記時代の設定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3-2(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1975), pp. 1~5; 上島 享, 『平安初期佛敎の再檢討』, 『佛敎史學研究』40-2(京都: 佛敎史學會, 1997), pp. 38~68 참조].

38) 珍嵩의 『探玄記私記』에서 私記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39) 珍嵩의 『孔目章記』 逸文 자료 및 성격에 대해서는 최연식, 『珍嵩의 『孔目章記』 逸文에 대한 연구』, 『天台學研究』4(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3), pp.587~620 참조.

40) 均如 저술들에 인용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연식, 『均如 華嚴思想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인용자료의 검토로 본 사상적 배경’, pp.117~138 참조.

41) 이러한 均如의 작업은 光宗의 불교 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광종은 불교 각 종파들의 통합과 체계화를 의도하였는데, 화엄종에서는 均如를 적극 지원하여 그의 사상에 따라 화엄종의 사상체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균여 저술들의 바탕이 된 화엄학 문헌들에 대한 강의는 대부분 광종의 요청 및 후원에 의한 것이었다.

있던 것이다.

2. 『法界圖記叢髓錄』

『법계도기총수록』의 편찬자와 편찬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내용과 인용문헌이 14세기 전반기의 화엄학승 體元의 저술들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체원을 편찬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지만⁴²⁾ 해인사에 전해지는 『법계도기총수록』의 목판이 고려 再雕大藏經 조판 직후에 만든 補遺板의 일부로서 이미 13세기 중엽에 이 책이 존재했다는 반론이 있다.⁴³⁾ 이에 대해서는 재조대장경 보유판을 모두 13세기 중엽에 판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⁴⁴⁾ 『법계도기총수록』 목판이 형태상 1248년에 大藏分司 都監에서 판각한 같은 보유판 중의 『證道歌事實』과 같은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는 서지학적 견해⁴⁵⁾를 고려할 때 13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법계도기총수록』에는 균여의 저술들도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균여 이후 재조대장경 판각 이전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이 균여의 저술과 사상적으로 상통한다는 점에서 13세기 중엽 균여의 저술의 재판집과 간행에 관여한 天其를 유력한 편찬자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⁴⁶⁾

『법계도기총수록』은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의상의 『법계도기』에 대한 주요 주석서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수록된 주석서들은 『法(融)記』, 『眞(秀)記』, 『大記』 등 3종인데, 의상의 孫弟子 神琳의 문도인 法融이 지은 『法(融)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책의 저자 및 저술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상 『법(용)기』는 800년 전후, 『대기』는 9세기 중엽 이후의 저술로 보이며, 『진(수)기』는 『법(용)기』와 『대기』의 사이에 찬술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계도기총수록』은 의상의 『법계도기』를 내용상 여러 단락으로 구분하고 각 단락별로 그에 해당하는 3종의 주석서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

42) 金知見, 『新羅 華嚴學的 系譜와 思想』, 『學術院論文集』12(서울: 대한민국학술원, 1973), pp.31~65. 일본에서 간행된 『佛書解説大辭典』도 體元編으로 서술하고 있다.

43) 채상식,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서울: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82), p.244.

44) 김지건, 『法界圖記叢髓錄』(海東華嚴研究資料 第二輯) <解題> (서울: 전통불교연구원, 1987), p.4.

45)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196.

46) 김상현, 『『叢髓錄』考』,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서울: 정음문화사, 1985), p.378.

러 각 주석서의 인용 부분 뒤에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의 이해를 돕는 다른 문헌들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목판에서는 추가된 인용문들은 한 글자를 낮춰서 3종의 주석서로부터의 인용문과 구분하고 있다.⁴⁷⁾ 내용상 『법(용)기』와 『진(수)기』, 『대기』 세 문헌의 전체 내용이 모두 인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각 단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발췌되어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법계도기총수록』은 『법계도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함으로써 이해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편찬자 본인의 견해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러 주석서 사이에 異見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판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법계도기』에 대해 체계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 균여의 『법계도원통기』와 별도로 『법계도기총수록』이 편찬된 것은 당시 고려 화엄종 내부에서 『법계도기』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 화엄종의 주류는 의상계 화엄학을 계승하였고, 따라서 의상의 화엄사상 특히 『법계도기』의 사상이 중심이 되었다. 『법계도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실천이 중시되는 가운데 균여와 같이 기존의 견해들을 종합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해석들을 존중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존, 계승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3. 知訥의 『華嚴論節要』

지눌(1158~1210)의 『華嚴論節要』(3卷)는 지눌의 입적 3년 전인 1207년에 편찬되었다. 지눌은 수행과정에 있던 1185년 下柯山 普門寺에서 唐나라 李通玄(635~730)의 『新華嚴經論』을 열람하고 이전의 깨달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 책을 慧能의 『法寶壇經』, 大慧 宗杲의 語錄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항상 함께 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이 세 문헌으로 공부의 토대를 삼으라고 하였다.⁴⁸⁾ 이처럼 중시하였던 『신화엄경론』을 지눌 자신이 만년에 직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 바로 『화

47) 『법계도기』의 내용을 해설하는 3종의 주석서와 그 주석서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인용문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처음에는 주석서들만을 모아 편집하였고 후에 거기에 추가 인용문을 첨부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48) 知訥의 碑文中에서 지눌의 사상적 특색에 대하여 “其勸人誦持 常以金剛經 立法演義 則意必六祖壇經 申以華嚴李論 大慧語錄 相羽翼 開門有三種 曰惺寂等持門 曰圓頓信解門 曰徑截門 依而修行 信入者多焉”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엄론절요』이다.⁴⁹⁾

기존의 저술을 발췌한 것이므로 독자적인 저술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40권이 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신화엄경론』을 자신의 관점에서 요점만을 모아 3권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지눌의 사상을 드러낸 편찬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눌은 또한 세 곳에서 『신화엄경론』 본문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덧붙여⁵⁰⁾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보충 설명 부분에서는 『탐현기』와 『공목장』의 관련되는 부분을 함께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눌은 선승이지만 『화엄경』과 화엄교학에 관심이 많았다. 義相과 元曉를 비롯하여 智儼과 法藏, 澄觀 등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을 익숙히 알고 있었고 저술에서 이들을 빈번히 인용하고 있다.⁵¹⁾ 그는 『화엄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독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기초하여 기존의 화엄학자 및 그들의 저술에 대하여 주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圓頓成佛論』에서는 法藏과 澄觀, 李通玄 등의 화엄사상의 특징을 밝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눌은 화엄사상의 핵심을 모든 중생과 부처가 根本普光明智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 性起라고 파악하였고, 이것을 禪宗의 頓悟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이통현의 화엄사상을 가장 완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고, 이통현의 그러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화엄론절요』를 편집한 것이었다.

『화엄론절요』는 기존의 『화엄경』 관련 문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경』의 사상을 이해하려 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신라와 고려시기 화엄학 문헌들이 주로 60권본 『화엄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던 것과 달리 80권본 『화엄경』을 기본 텍스트로 한 것이었다. 고려후기에 지눌의 사상을 계승하는 修禪社가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화엄경』 및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에도 지눌의 영향이 증대하게 되었다. 지눌의 『화엄론절요』는 한국 불교계의 『화엄경』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智儼, 法藏 등의 60권본 『화엄경』의 주석서로부터 李通玄과 澄觀 등의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49) 『華嚴論節要』는 국내에는 전래되지 않고 일본 神奈川縣의 金澤文庫에 유일한 寫本이 전해져 왔다.

50) 『韓佛全』4, pp.822中~823下, p.849上, pp.868上~下. ‘牧牛子曰’이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51) 全海住, 『義湘 華嚴思想史 研究』(서울: 민족사, 1993), p.234에서는 『신화엄경론』을 제외한 지눌의 저서 7종에 『화엄경』을 비롯한 10종의 화엄관련 문헌이 총 147회 인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책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인용까지 포함하면 인용 횟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4. 體元의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體元이 편찬한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2卷, 이하 『별행소』)는 貞元本 『華嚴經』 즉 40권본 『화엄경』 중의 觀自在菩薩 法門 부분에 대한 주석서이다.⁵²⁾ 잘 알려진 것처럼 40권본 『화엄경』은 善財童子가 깨달음을 구하여 여러 선지식들을 參問하는 <入法界品> 부분을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번역한 것인데, 『별행소』는 그 중에서 선재동자가 觀自在菩薩에게 참문하는 내용만을 발췌한 후, 각 구절마다 淸涼澄觀의 疏(『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 중의 해당 부분을 첨부하고, 다시 澄觀疏의 내용에 대한 편자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편자 자신의 부연설명 부분은 ‘集曰’로 표시하였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화엄경』 본문과 그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疏’, 그리고 그 疏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集’의 3가지 성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적으로도 경전보다 한 칸 낮춰 쓴 ‘疏’, 다시 疏보다 한 칸 낮춰 쓴 ‘集’으로 표현되어 있다. ‘集’은 기본적으로 疏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제일 첫 부분의 경전 번역자와 疏 찬술자에 대해서는 疏의 내용과 관계없이 역대의 『화엄경』 번역 사실과 번역자 般若三藏, 疏主 澄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이외의 ‘集’의 내용은 주로 疏에 나오는 구절이나 용어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澄觀의 저술인 『普賢行願品別行疏』, 『華嚴經疏』, 『隨疏演義鈔』와 宗密的 『普賢行願品疏鈔』에 주로 의거하면서, 징관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觀音菩薩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서 天台智顓의 『법화경』 주석도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다. 그밖에 智嚴(『孔目章』), 李通玄(『新華嚴經論』), 神秀(『妙理圓成觀』), 戒環(『楞嚴經要解』), 思孝(書名 미상) 등의 저술도 인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로 이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하권에서는 관음보살의 중생 구제와 관련하여 『靈驗傳』, 『冥祥記』, 『感應傳』, 『高僧傳』, 『大藏一覽』 등에 보이는 관음보살 관련 영험담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

『별행소』는 교학적 설명보다 觀自在菩薩 즉 觀音菩薩에 대한 칭송과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편찬 목적과 관련되는 것이다. 『별행소』 자체에는 이 책의 편찬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體元의 또 다

52) 體元의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蔡尙植,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奎章閣』6[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2];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一潮閣, 1991)에 재수록 참조.

른 저술인 『白花道場發願文略解』(이하 『약해』)의 뒤에 붙어 있는 발문⁵³⁾ 내용을 통해 이 책의 편찬 및 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1328년 10월에 쓰여진 이 발문에서 체원은 家兄인 源公(=忍源)의 부탁으로 『별행소』를 편찬하였으며, 아울러 관음보살에 대한 義相의 발원문에 대해 略解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체원의 형인 忍源이 『화엄경』의 내용에 기초한 관음보살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은 체원이 인원의 지시로 40권본 『화엄경』 중의 관음보살 법문 부분만을 발취하여 수지독송용으로 편집한 『華嚴經觀音知識品』(이하 『지식품』)에 붙인 忍源의 발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⁵⁴⁾ 1331년 10월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서 인원은 어려서 부모와 스승을 잃은 후에 당시까지 30여 년간 『화엄경』 관음보살 법문을 독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⁵⁾

『약해』와 『지식품』 등의 발문을 통하여 체원이 家兄인 인원의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별행소』를 비롯한 여러 책들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행소』는 이처럼 관음신앙에 공감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저술이었기 때문에 관음보살에 대한 칭송과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화엄경』 중에서 관음보살 관련 부분만을 별도로 발취하고, 그에 대해 주석한 『별행소』는 화엄학 문헌으로서는 매우 독특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려 후기 화엄종 승려들의 신앙 모습에 대해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澄觀의 疏에 대한 주석인 동시에 주석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징관의 저술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義天에게서 시작된 澄觀 사상에 대한 강조가 고려 후기 화엄종 승려들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53) 『韓佛全』6, p.577上. “我家兄普應大師源公 一生偏信觀音大聖 勸誦華嚴觀音法門 三十餘人. 倩我注夾其經 以清涼疏 箋於經下 兼集略解 因成二卷 又依經旨 略解白花道場文 以助家兄崇信之誠 兼答同學交于之意 廣施法財 上資玄福於一人 下施法流於九類云耳 致和元年戊辰十月 在海印山寺集解 後學沙彌 木庵體元誌”

54) 1331년 12월에 忍源이 간행한 『三十八分功德疏經』에 붙인 體元의 跋文에도 忍源의 관음보살에 대한 각별한 신앙이 이야기되고 있다.

55) 『韓佛全』6, p.603下. “予於髫鬢時 先人早逝 就先師慧覺國尊 院內日侍瓶錫 未幾師又棄世 遂抱疇依之念 思欲奉薦冥福 小報師親罔極之恩 頌此觀音別品 迄今三十年 受持不絕 其爲信向固不淺矣 越己巳冬 寓靈通寺 普勸同住諸宗長 闍院同頌 募工繡梓 廣施無窮 所冀皇齡有永 國祚彌長 三世師長父母 與夫同頌之人 親承菩薩大悲願力 恒聞菩薩微妙法音 普及法界有情 同入圓通 三昧性海者 月光典香普應大師忍源誌”

I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와 고려시기의 화엄학 문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라와 고려에서는 『화엄경』 자체에 대한 주석서는 매우 드물어서 원효의 『화엄경소』와 태현의 『화엄경고적기』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화엄경』과 화엄학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헌도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가 많지 않은 것은 신라와 고려 화엄학의 주류를 이룬 의상계 내부에서 智儼과 法藏 등 초기 화엄학 조사의 『화엄경』주석서와 화엄학 개론서들이 이미 정통적인 주석서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원효와 태현, 표원 모두 의상계에 속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의상계에서는 주로 義相과 智儼, 法藏 등의 저술에 대한 해설서 즉 私記 성격의 문헌을 찬술하였는데, 이 전통은 의상의 직계 제자들부터 고려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찬술된 것은 의상의 『법계도기』에 대한 해설서로서 신라와 고려의 화엄학이 『법계도기』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지엄과 법장의 저술 중에서는 『공목장』과 『탐현기』에 대한 해설서가 신라와 고려에서 각기 1회씩 확인되고 있다. 화엄학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망라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공목장』과 60권 『화엄경』에 대한 체계적 주석서인 『탐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기 화엄학의 대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法藏의 『教分記』에 대한 해설서는 고려초 鈞여의 것을 제외하면 확인되지 않는다. 『교분기』에 대한 연구와 해설서 찬술이 활발하였던 중국과 일본의 화엄학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80권 및 40권 『화엄경』에 관한 저술이 많지 않은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80권 『화엄경』과 그에 대한 주석서인 李通玄의 『華嚴經論』과 澄觀의 『華嚴經疏』 등이 일찍부터 전래되고 읽혔지만 이에 대한 주석서나 해설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려후기의 禪僧 지눌이 李通玄의 『화엄경론』을 節要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80권 『화엄경』과 그에 대한 주석서들은 60권 『화엄경』과 그 주석서들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0권 『화엄경』에 관한 저술로는 14세기 초 體元이 편찬한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가 유일한데, 40권본 『화엄경』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觀自在菩薩의 법문 부분 만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화엄교학 자체보다는 관음신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전의 내용을 설명한 澄觀의 疏를 인용하고 그에 대해 해설하는 私記적 성격의 문헌이다.

신라 및 고려의 화엄학이 60권 『화엄경』 및 그 주석서 위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80권 및 40권 『화엄경』 주석서를 지은 澄觀의 사상은 크게 중시되지 못하였다. 고려 초 균여는 징관의 저술을 다수 인용하였지만 義相과 智嚴, 法藏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고려 중기 義天이 그의 화엄사상을 선양한 후에도 징관의 저술을 부연하는 문헌은 드물었다. 징관의 疏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붙인 體元의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가 유일하다.

한편 의상의 『법계도기』를 비롯하여 『해인삼매론』, 『화엄일승수행자비밀의기』 등 화엄의 진리를 槃詩를 통해 표현한 문헌들이 많다는 것도 한국 화엄학 문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문헌은 화엄학의 이론들을 설명하기보다 깨달음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법계도기』에 기초한 한국 화엄학의 발전 양상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인삼매론』과 『화엄일승수행자비밀의기』는 의상의 사상을 중시하면서도 원효 사상이나 밀교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여 반시로 나타내려 한 시도들이 화엄학계의 주류적 흐름 바깥에서 계승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조선시대 특히 17세기 이후의 화엄학은 이상과 같은 신라 및 고려시대의 화엄학 전통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60권본 『화엄경』과 지엄, 의상, 법장 등의 초기 조사들에 초점을 둔 신라, 고려의 화엄학과는 달리 조선후기의 화엄학은 80권 『화엄경』 및 澄觀의 저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신라, 고려시대의 화엄학에서 조선시대 화엄학으로의 전환 과정 및 그러한 사상적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義相, 『法界圖(記)』
義相 『華嚴經問答』
元曉 『華嚴經疏』
明晶, 『海印三昧論』
表員,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均如, 『教分記圓通鈔』
均如, 『旨歸章圓通鈔』
均如, 『三寶章圓通記』
均如, 『十句章圓通記』
均如, 『法界圖圓通記』
知訥 『華嚴論節要』
體元,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見登, 『華嚴一乘成佛妙義』
『法界圖記叢髓錄』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永超, 『東域傳燈目錄』

金相鉉, 「『叢髓錄』考」,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서울: 정음문화사, 1985)
金相鉉, 「新羅 明晶의 『海印三昧論』考」,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歷史學의 諸問題』(서울: 범우사, 1992)
金相鉉,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84(서울: 一志社, 1996)
金知見, 「新羅 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學術院論文集』12(서울: 대한민국학술원, 1973)
金知見, 『法界圖記叢髓錄』(서울: 전통불교연구원, 1987)
金知見 監수·金天鶴 역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서울: 민족사, 1998)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남동신,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全海住, 『義湘 華嚴思想史 研究』(서울: 민족사, 1993)

- 채상식,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韓國華嚴思想研究』(서울: 동국대출판부, 1982)
- 蔡尙植,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奎章閣』6(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2)
- 최연식, 『均如 華嚴思想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최연식,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한국사연구』115(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 최연식, 『日本 古代華嚴과 新羅佛敎』, 『한국사상사학』2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3)
- 최연식, 『珍嵩의 『孔目章記』逸文에 대한 연구』, 『天台學研究』4(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3)
- 최연식,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와 羅末麗初 華嚴學의 一動向』, 『한국사연구』126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4)
-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12(서울: 불교학연구회, 2005)
- 結城令聞, 『日本の唯識研究史上における私記時代の設定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3-2(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研究會, 1975)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77)
- 佐藤 厚, 『『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の基礎的研究』, 『東洋學研究』39(東京: 東洋大學東洋學研究所, 2002)
- 上島 享, 『平安初期佛敎の再檢討』, 『佛敎史學研究』40-2(京都: 佛敎史學會, 1997)
- 石井公成,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敎學研究』33-2(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研究會, 1985)
- 石井公成, 『新羅佛敎に於ける『大乘起信論』の意義-元曉の解釋を中心として』, (平川 彰 編)『如來藏と大乘起信論』(東京: 春秋社, 1990)
- 姚長壽, 『房山石經における華嚴典籍について』, (氣賀澤保規 編)『中國佛敎石經の研究-房山雲居寺石經を中心に』(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1996)
- 崔鉉植, 『『大乘起信論同異略集』の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敎論集』7(東京: 駒澤短期大學, 2001)

〈Abstract〉

The Contents and Character of the Huayan Literature in Shilla and Koryo Dynasties

Choe, Yeon-Shik

During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of Korean Buddhism the *Huayan Sutra* was one of the most popular sutras among the scholar monks and the study on it was the main theme of the time. Also many works on the *Huayan Sutra* was written in the times. However the number of preserved works even including some ones left in the fragments is less than 20. There remain only a dozen of works intact. In this article we try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uayan Literature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through the investigations on the works written in Shilla and Koryeo dynasties which include Uisang's *the (Expalnation on) the Dharma-dhātu Diagram*(『法界圖(記)』) and the Catechism on Huayan Sutra(『華嚴經問答』), Wonhyo's *the Commentary on Huayan Sutra*(『華嚴經疏』), Myeonghyo's *On the Ocean-seal Sammadhi*(『海印三昧論』), Pyowon's *the Explanations on the Essentials of Huayan Sutra*(『華嚴經文義要決問答』), Gyunyeo's Commentaries on Zhiyan, Fazang and Uisang's works(『十句章圓通記』, 『教分記圓通鈔』, 『旨歸章圓通鈔』, 『三寶章圓通記』, 『法界圖圓通記』), Jinul's *the Summary of (Li Tongxian's) Commentary on Huayan Sutra*(『華嚴論節要』), Chewon's *the Commentary on the Holy teaching of Avalokitesvara in Huayan Sutra*(『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Gyeondeung's *the Excellent Teaching of Huayan One Vehicle on Attaining Buddhahood* 『華嚴一乘成佛妙義』 and anonymous *the Collection of Essences of the (Expalnation on) the Dharma-dhātu Diagram*(『法界圖記叢髓錄』) and the *Ganda-vyuha eka-yana Practicer's Secret Teaching*(『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There were very few commentaries on Huayan Sutra itself in Shilla and Koryeo dynasties. Wonhyo's Commentary and Taehyeon's *the Archaeological*

Commentary on Huayan Sutra(『華嚴經古迹記』) are the only ones known while the former remain in fragments and the other only in name. The systematical introduction to Huayan Sutra was also very rare; *the Explanations on the Essentials of Huayan Sutra* is the only one known and preserved. Uisang's school, the mainstream of Huayan School during Shilla and Koryeo, had much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thoughts of Zhiyan, Uisana and Fazang and produced only the explanations on their works. Especially the explanations on Uisang's *the (Expalanation on) the Dharma-dhātu Diagram* were much popular.

Shilla and Koryeo Huayan study was mainly based on 60 volume Sutra and its commentaries, while the 80 volume and 40 volume Sutras got very little interest. Both of the two Suras have only one related work; *the Summary of (Li Tongxian's) Commentary on Huayan Sutra* is on 80 volume Sutra, while *the Commentary on the Holy teaching of Avalokitesvara in Huayan Sutra* is on 40 volume Sutra.

It is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reaan Huayan Buddhism that there were many works which show the Truth by diagram such as *the (Expalanation on) the Dharma-dhātu Diagram, the Ocean-seal Sammadhi Treatise and the Ganda-vyuha eka-yana Practicer's Secret Teaching*. These works focus on directly describing the state of Enlightenment instead of logically explaining the Huayan theories, which may be an aspect of Korean Huayan Buddhism based on Uisang's works.

• Key Words

Uisang(義相), Wonhyo(元曉), Myeonghyo(明晶), Pyowon(表員), Geyondeung(見登), Gyunyeo(均如), Jinul(知訥), Chewon(體元), *the (Expalanation on) the Dharma-dhātu Diagram*(『法界圖(記)』), *the Catechism on Huayan Sutra*(『華嚴經問答』), *the Commentary on Huayan Sutra*(『華嚴經疏』), *the Ocean-seal Sammadhi Treatise*(『海印三昧論』), *the Explanations on the Essentials of Huayan Sutra*(『華嚴經文義要決問答』), *the Commentary on (Fazang's) Explanations of Five Teachings*(『教分記圓通鈔』), *The Ganda-vyuha eka-yana Practicer's*

Secret Teaching(『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논문접수일: 2011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2일.